

[열려라 도서관_시즌2] 공통4. 도서관시설 소개

도서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방법이 문자로 표시, 기록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하는 건 물론 전 생애에 걸쳐 우리에게 교육도 해주는 평생교육 기관입니다.

이처럼 도서관은 우리에게 친근한 곳이에요. 책, 영화, 잡지,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걸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도서관을 본적 있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주인공들이 과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나옵니다. 또한 투모로우에서는 기상이변으로 빙하가 온 지구에서 사람들은 도서관에 모여 책을 불태워 생존합니다. 이처럼 영화에서 도서관은 주인공들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를 찾거나 살아남기 위한 장소이자 주인공의 직장으로 나옵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우리 일상생활에서 눈에 특별히 띄지는 않아도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 도서관 대출대

이곳은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대출대 입니다. 도서관 회원카드도 이곳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책 찾기가 어렵거나 도서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도 이곳에 계신 사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2) 어린이자료실

다음으로 둘러볼 곳은 어린이자료실 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아기부터 초등학생까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책이 많기 때문에 십진분류법에 따라서 과학책, 역사책 등 주제별로 책을 꽂아 놓습니다. 많은 책들 중 원하는 책은 저기 보이는 컴퓨터에서 검색하여 청구기호를 이용해 찾을 수 있습니다.

(3)서가

책을 꽂는 책장을 서가라고 합니다. 서가에는 목재와 철제로 만들어 진 것이 있고, 한 면에만 책을 배열하는 것을 단식서가, 양쪽에 책을 배열하는 것을 복식서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람 즉,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있고, 잡지, 신문대도 있습니다. 북트랙, 북앤드가 뭔지 아나요? 북트랙은 책과 기타 자료의 운반용 혹은 반납도서 보관용으로 도서관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도구이고, 북앤드는 서가에 진열된 책들이 옆의 빈 공간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책을 세워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4) 디지털 자료실

다음은 컴퓨터나 DVD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 입니다. 컴퓨터로 자료를 찾거나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열람하거나 빌릴 수 있습니다.

(5) 일반자료실

일반자료실은 중학생 이상 어른들까지 볼 수 있는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문이나 잡지도 열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6) 강의실

강의실은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에서 정보활용 수업을 받을 때 이곳을 이용하게 됩니다.

(7) 시청각실

마지막으로 시청각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이곳에서는 영화 상영 및 세미나, 강연이 열립니다.

자 그럼 도서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이 있는 잘 보았으니 우리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세요.